

# MUJINE

*Heritage*



03

MARCH 2014

JOURNEY TO SIHH  
SPECIAL WEDDING

유준상의 행복론  
딤클렌징 보고서

SPRING  
COAT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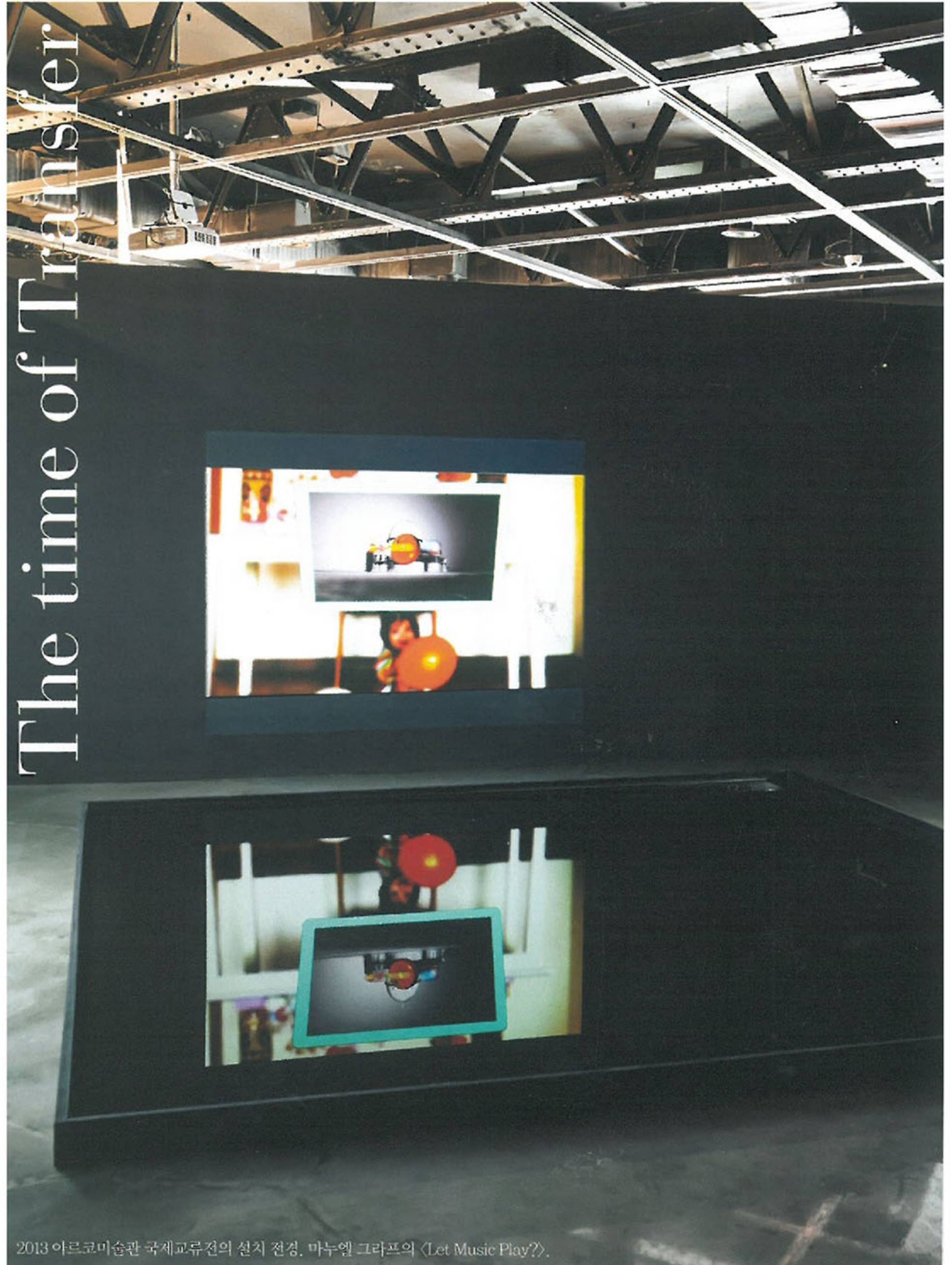
HUBLOT

위블로 클래식 울트라 싼 스텔레톤 킹 골드,  
위블로에서 자체 제작한 엑스트라 싼 스텔레톤 무브먼트,  
킹 골드 케이스, 스텔레톤 다이얼, 파워리저브 90시간,  
블랙 러버위의 엘리게이터 스트랩.

The time of Transfer Korea-NRW

3년의 시간에 비해 결과물은 단출했다. 단출했지만 단단했다.  
무한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을 가진 나라지만, 아우토반  
외엔 지나치게 속도를 내지 않는 독일과의 만남이기에 가능했다.  
트랜스페어 한국-엔에르가 지나온 3년의 시간.

— EDITOR 김만나 PHOTOGRAPHER 조영수 —



2013 아르코미술관 국제교류전의 설치 전경. 마누엘 그라프의 <Let Music Play?>.



나현 작가는 <로렐라이의 노래>에 뒤셀도르프 라인강과 한국 4대강의 시간을 담았다.

한국은 공공 미술 기관조차 똑딱, 한 달이면 전시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나라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 주어저도 작품 수준도 괜찮고 멀쩡한 도록도 나온다. 빨리빨리, 그리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드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좀 당황스러웠다. 잘 달리기로 소문난 말에게 느릿한 낙타의 걸음을 걸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 트랜스페어 한국-엔에르베(NRW)에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

독일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트랜스페어의 파트너를 찾는다. 트랜스페어는 국가 간 아티스트 교류전이다. 독일과 파트너 국가에서 각각 선발된 7인의 작가가 양국을 오가며 문화도 교류하고, 작품도 만든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이스라엘, 터키, 프랑스가 거쳐간 상대국이고 2011년엔 한국에 편지가 날아왔다. "Would You be Our Partner?" 첫 시작은 각국의 대표 작가 선발. 양국의 미술 전문가 33명이 모여 140명의 작가를 추천했고 최종으로 14명을 뽑았다. 선발된 7인의 한국 작가는 함경아, 정승, 정연두, 김기라, 나현, 원성원, 이수경. 면면을 보면 아트페어보다는 비엔날레, 갤러리보다는 미술관에 불려다니는 작가들이다. 국가 간 미술 교류전은 많지만 3년간 지속되는 행사는 드물다. 작가들에겐 일정 작품에 대한 압박도 없었고, 상대국에서 머무는 체류 비용으로 3000유로씩 제공했다. 그 시간에 작업을 하든 전시를 보든 상관없었으니 '게으름의 미학'을 본질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그들에겐 이보다 좋을 수 없었다. 트랜스페어라는 미술 교류전은 독일이니까 가능한 프로젝트다. 미국이 국가적으로 작가를 잘 만들어 팔고, 영국이 그 중간쯤에 있다고 보면 독일은 아직 순결한 편이다.

프로젝트의 주최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줄여서, 엔에르베) 문화사업국. 엔에르베는 뒤셀도르프와 부퍼탈, 쾰른 등의 도시를 포함한 과거 아방가르드 문화 예술 운동의 발생지다. 아르코미술관 이영주 큐레이터가 말했다. "엔에르베 디렉터가 한국에서 오프닝을 했을 때 한 말이에요. 과장일 수도 있지만, 엔에르베 전체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행사의 80%를 문화사업국에서 기획하고 지원한다고요." 독일 서쪽에 위치한 엔에르베 주를 한국에 대입하자면, 충청도쯤 된다. 우리의 용어를 쓰자면, '지방'에서 국가 대 국가 간 문화 교류전을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하면 내세울 만한 미술관 하나 존재하지 않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트랜스페어의 파트너로 아시아에선 한국이 처음이다. 중국과 일본을 제쳐두고 왜 한국일까? 부퍼탈에서 유학 시절을 보내고, 뒤셀도르프에서 대학교수를 지낸 백남준이라는 존재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쿤스트할레 뒤셀도르프의 그레고르 얀젠 박사도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 "한국인이 승배하며 뒤셀도르프에서 교수직을

역임한 미디어아트 백남준. 그는 거칠 것 없고 황홀할 만큼 형색색의 현란하게 빛나는, 모든 형식과 색을 사용한 놀라운 작업을 했다." 이번 트랜스페어에 참여한 작가 김기라는 언젠가 그들이 한 말을 전했다. "독일에서 볼 때 한국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재미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보링 재팬, 에메이징 차이나, 인크레더블 인디아,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말하더군요. 중국은 워낙 미술 시장이 커지다 보니 커머셜로 들어선 작가가 많고, 일본은 오타쿠 같은 작업을 하는 작가가 많고, 개념을 강하게 품으면서 표현에 다양성을 갖는 나라가 많지 않은 거죠." 상대의 나라를 서로 오갔고, 3년 동안 나는 결과물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6개 기관에서 2013년 말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전시에서 선보였다. 한국에선 국립현대미술관, 대안공간 루프, 아르코 미술관, 독일에선 본 미술관, 오스트하우스미술관 하겐, 쿤스트할레 뒤셀도르프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인공들. 작가 나현은 'Song of Lorelei' 프로젝트에서 뒤셀도르프와 한국을 연결했다. 뒤셀도르프 시립 박물관에서 중세 시대에 울타리로 사용하던 14세기 참나무 말뚝을 발견한 그다. 뒤셀도르프의 한 공방에서 이를 복제해 라인 강가에 다시 설치했고, 서울에선 똑같은 말뚝을 제작해 4대강 언저리에 세웠다. 4대강 사업이 뒤셀도르프를 벤치마킹했다는 사실을 이 작품을 통해 알았다. 마누엘 그라프는 한국 방문 당시 우연히 본 돌잔치 사진을 보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새로운 그의 영상 'Let Music Play?' 속엔 들판 쌓아 올린 알록달록한 사탕과 과일 건축양식을 설명하는 3D 애니메이션과 오버랩되어 통통 튀다. 따로 또 함께, 작품 속에는 그들이 3년간 나는 시간이 녹아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의미 있는 또 하나는 '교차 비평'이 이루어진 점이다. 독일 작가들이 한국에 머무를 땐 한국 평론가들이, 한국 작가들이 독일에 머무를 땐 독일 평론가들이 작가론을 집필했고 이를 한 권의 책으로 남겼다. 3년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 한국 큐레이터들에겐 3년이 영원처럼 느껴진, 작가들에겐 더 없이 달콤했을 시간. 이영주 큐레이터는 프로젝트가 1년 남은 시점에서 합류했다. 아르코미술관의 경우, 큐레이터 계약 기간이 2년이다. "독일 큐레이터는 변함이 없지만, 한국은 큐레이터가 사라지고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매년 만들어내는 데 익숙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결과물보다는 '교류'에 의미를 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성' 기준으로 따지면 시간 대비 결과물이 한참 못 미친다. 그렇다. 트랜스페어가 알려주는 건 이거다. 독일은 아우토반에서 마음껏 속력을 낼 수 있지만, 아우토반 외에는 지나치게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것. 그 안에 존재한 건, 그러니까 크나큰 행운이다.





'트랜스페어 한국-엔에르베'에 참여한 작가 중 김기라를 만났다. 말을 재미있게 하는 작가라며, 아르코 미술관 큐레이터가 추천했다. 꽤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이, 독일 작가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주도나 DMZ 안내를 자청하며 것처럼 애쓴 사람이 없다. 고마운 마음에 작가, 루카 핀아이젠은 이번에 만든 작품을 그에게 선포 내밀었을 정도. 2012년, 작가들은 서로의 나라를 찾았다. 한국 작가들은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본과 뒤셀도르프, 하겐에서, 독일 작가들은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에 머물렀다. 김기라는 뒤셀도르프의 한 레지던스에 갔다. 그의 최근 시리즈 <이념의 무게> 중 '숨 없이'도 이 시기에 완성했고 그가 롤모델로 여기는 전준호, 문경원 작가가 초청된 '카셀 도큐멘타'도 보고 왔다. "리서치와 아카이빙이 워낙 잘되어 있어 평소에 구상했던 걸 실행하기 좋았어요. 우리나라의 커머셜 화랑과는 다른 개념의 서포트가 이루어지는 점도 놀라웠고요. 가장 부러웠던 건 사회 전체에 작가에 대한 리스펙트가 깔려 있는 점이었어요. 예술가라 하면 배고프겠다, 나도 그렇게 그리겠다 뭐 그런 우리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자존감만 있다면 사실 작가는 돈이 많지 않아도 되는 존재거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와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한 자에게 건네는 거짓 위로다. 운동 선수만이 아니다. 작가 또한 얼마에 작품이 팔렸느냐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시절. 그 시절을 살아내기가 녹록지 않지만 1999년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꽤 잘 버텼고, 여전히 타협하지 않고 멋진 길을 간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한스 하케예요. 백남준 선생님과 함께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독일관 대표 작가로 참가한 적이 있는데 최고였죠. 독일관이 히틀러가 만든 건물이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에 징용된 노동자들을 불러 바닥을 다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의 영상에서, 그림에서, 설치에서 비뚤어진 세상의 단면은 별거숭이가 된다. 사회가 직면한 충돌과 갈등, 그 안에는 소수라 주목받지 못하는, 종료되지 않은, 간과한 이야기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240조원을 갈등의 사회적 비용으로 쓰는 나라예요. 터키가 종교 갈등으로 1위고, 우리가 2위죠. 이 내재적 갈등을 어떻게 담론화할 것인가 생각해요." 그의 작업은 일견 은유적이지만, 과녁의 정중앙을 향한다.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안쪽에 들어가 나사 하나를 푸는 방식'이라 그는 표현했다. 조금이라도 빠듯, 엇나가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도록. 아르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문화역 서울 284는 현재 그가 참여한 전시가 열리는 세 곳. 작가가 존재하는 곳을 보면, 작가의 미래가 보인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진행된 한국-엔에르베(NRW), 독일과 한국에서 각각 선발된 7인의 작가가 3년간 양국을 오갔고, 풍성한 시간을 쌓았다. 중요한 것은 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남은 정서적인 유대감과 신뢰다.



2



3

16개의 영상과 드로잉, 설치로 구성된 김기라 작가의 <이념의 무게>. 2 맥주병과 박스 등 일상의 오브제를 작품 안에서 유머러스하게 해석, 노동자의 삶과 일상의 위대함을 말한 웹 코메어슈테트. 3 안 알버스가 서울의 도시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한 <SeoulSoul>.